

# 프랑스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 (完)

Catholic Church & Monastery Building in France  
썩 미셀 대길르 성당

박효순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공학박사  
by Park Hyo-S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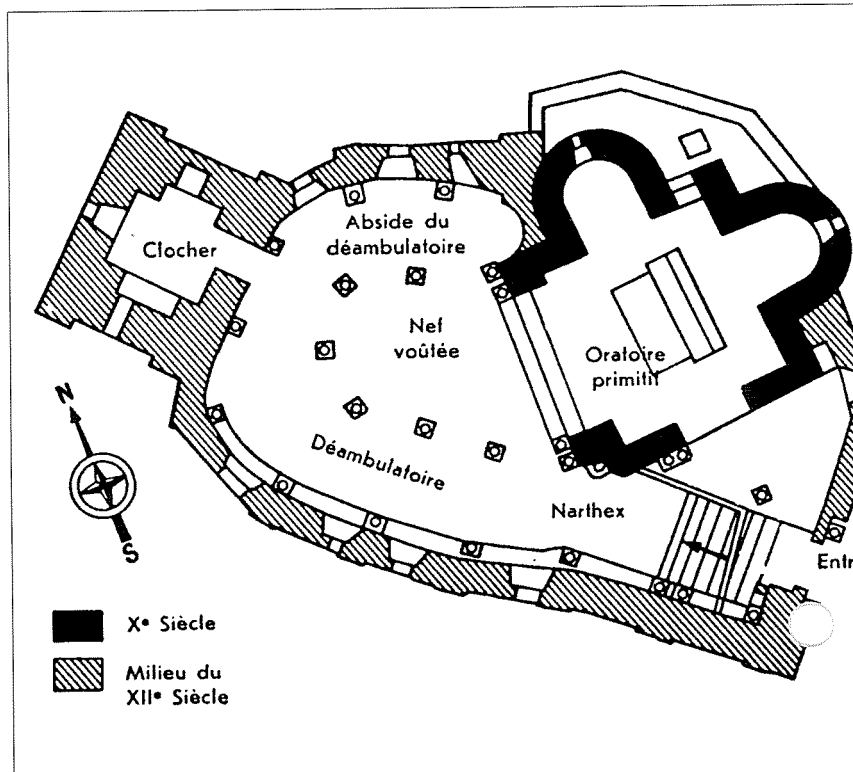
1. 알비의 썩뜨-썩실성당
2. 콩고의 썩뜨-푸와수도원
3. 랭스의 노트르담성당
4. 몽-썩-미셀수도원
5. 썩-넥테르성당
6. 아미앵성당
7. 썩-마르탱-까니구수도원
8. 오펕성당
9. 사르트르성당
10. 로데즈 성당
11. 썩 미셀 대길르 성당

## 1. 개요

르 뷔 앙 블레이(le Puy-en-Velay)도시, 르 뷔(le Puy)란 “언덕”이란 뜻으로 이 도시는 오베르뉴(Auvergne)의 산들로 둘러싸인 가운데 언덕위에 자리잡고 있다. 중세기에는, 스페인의 썩 자끄 드 콩뽀스텔(Saint Jacques de Compostelle)로 가는 순례길의 기점이 되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프랑스의 거의 중심부인 클레르몽페랑(Clermont-Ferrand)시에서 동남쪽으로 130km, 리용(Lyon)시에서 남서쪽으로 136km떨어진 곳으로서 거의 같은 거리에 있는 곳이다. 이곳 르 뷔(le Puy)에는 검은 얼굴의 성모자상이 있는 성당(Notre Dame)과 바위산에 있는 작은 성당이 있는데 이중 바위산에 있는 작은 성당인 썩 미셀 대길르(Saint-Michel d'Aiguilhe)을 소개하고자 한다.

르 뷔 앙 블레이(le Puy-en-Velay)시 북서쪽에 우뚝 솟아있는 자연 그대로의 거대한 오벨리스크(방첨탑)는 보는 이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그 중에서도 지질학적인 호기심이 으뜸이다. 바위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의 이름은 애길르(Aiguilhe)로 우뚝솟아 있는 바위는 이 마을을 상징한다. 애길르(Aiguilhe)의 바위는 지질학자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화산암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은 이곳에서 암맥을 찾고자 했으며 위대한 지질학자 마르셀랭 볼르(Marcellin Boule)는 이 독특한 오벨리스크에서 화산물질로 가득한 분화구의 분연구를 발견하고 침식작용으로 인해 분연구가 유리되었다는 사실도 알아내었다. 주위의 고원은 현무암으로 덮여있고 고원내부에 있는 화산 분연구와 틈이 막혀있는 이 지역은 많은 화산 암상의 직접적인 분출구로 추정되었다. 양쪽에 솟아있던 지층의 점차적



성당 평면도

인 풍화작용으로 현재는 암맥의 여러 표본이 남아있다. 정상 높이는 82m, 밑부분의 둘레 170m, 정상 직경은 57m이다. 이곳은 항상 신에게 바쳐진 신성한 장소였다. 태양을 숭배하기 위해 이곳에서 불을 피웠고 로마인들은 메리쿠리우스(주피터의 아들로 사랑의 사자)에게 제사를 지냈다. 쥘 미셀(Saint-Michel) 작은 성당의 건축에 이용된 거대한 세바위는 고인들의 자취처럼 보인다. 이곳은 중세기에 기독교화 되었고 기독교인들은 바위의 꼭대기에 바위와 완전히 일치할 수 있는 건축상 매우 경이로운 쥘 미셀 작은 성당을 건립하였다. 작은 성당은 우뚝 솟아있는 바위와 함께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 한 쪽이 없는 다른 한 쪽을 상상하기가 어렵다. 애길르(Aiguilhe)의 바위는 12세기에 건립된 로마네스크 양식의 문을 지나 올라갈 수 있다. 오베르뉴 지방의 상인방, 로마네스크 양식의 기둥머리가 있는 두 원주, 검은 색과 흰색의 홍예머릿돌로 쇠시리를 넣고 구면으로 장식한 아키볼트를 볼 수 있다. 문앞에 있는 반원형의 네 계단을 지나면 옛날에는 오르기가 불가능했던 이 바위를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만든 268계단이 나온다. 해마다 봄이면 여러가지 이끼나 황금색 비단 향꽃우유, 연보라빛 백합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하는 이 바위위에 중세기 기독교도들의 수호자였던 대천사에게 바칠 공중기도실을 건립한 것은 미리 예정되었던 것처럼 보인다. 카롤링 왕조때부터 이탈리아의 가르가노(Gargano)산에 있는 그의 성전과 그의 발현을 기념하기 위해 고지 위에서 미셀성인을 찬양하는 것이 전통이었다. 성당과 수도원에서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인 탑의 꼭대기에 미셀성인의 입상과 제단을 놓았다. 르 뵘(le Puy)대성당 북쪽익랑의 특별석에는 5.50m키에 비잔틴 양식의 옷을 입은 미셀 성인의 벽화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가장 위대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 2. 건축의 역사

이 바위 위에 미셀성인에게 바칠 궤도실을 건립할 생각을 했던 사람은 르 뵘(le Puy) 대성당의 교회 참사회장이었던 트리아누(Truanus)였으며 대성당의 주교 고펜스카(Gothescalk)는 트리아누의 생각에 동의를 표하여 962년 8월 성당의 초석을 놓고 축성식을 거행했다. 10년 후인 972년 주교 고펜스카의 후임자였던 앙주(Anjou)의 귀이(Guy)주교가 작은 성전을 축성했다. 보존되어 있는 라 오뜨 루아르(la Haute-Loire)지방의 고문서에서 그 당시의 사정을 알 수 있다. 건립자는 이 성당을 르 뵘의 노트르담(Notre-Dame)교회 참사회에 기증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고문서는 962년 8월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있다. 옛날에는 바위를 잘라만든 이 계단을 올라가는 도중에 여러군데 기도실이 있었다. 바위 아래쪽에 1418년부터 1443년까지 르뵘의 주교였던 기욤 드 샬랑송(Guillaume de Chalan Con)이 건립한 것으로 가브리엘(Gabriel)성인에게 봉헌된 작은 성당이 있었으며 작은 성당주위에는 아름다운 주택들이 있었다. 또한 가브리엘 성당의 조금 위쪽에는 라파엘(Raphael)성인에게 봉헌된 작은 성당이 있었고 쥘 라파엘 작은 성당과 쥘 미셀 작은 성당사이 바위의 중간쯤 높이에 기네포르(Guigné fort)성인에게 봉헌되었던 작은 기도실이 있었다. 스코틀랜드 태생의 이 성인은 간질병 환자인 어린이들이나 구루병 환자인 어린이들을 위해 구원을 빌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바위를 사람의 손으로 판 몇개의 작은 동굴을 보게되는데 대천사의 보호아래 있고싶어했던 순례객들이 밤을 지내기 위해 그리고 순례여행동안 기도를 하기위해 꾸민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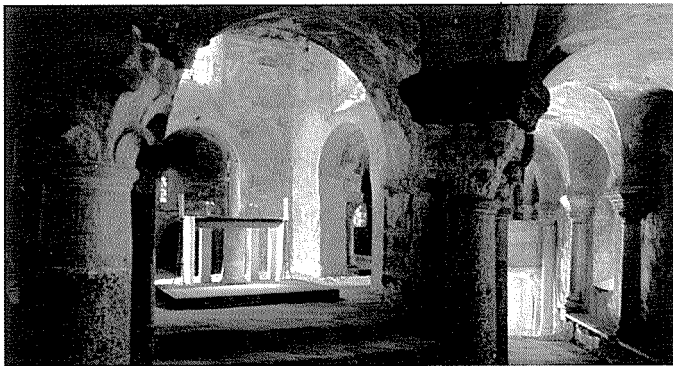
원경

### 3.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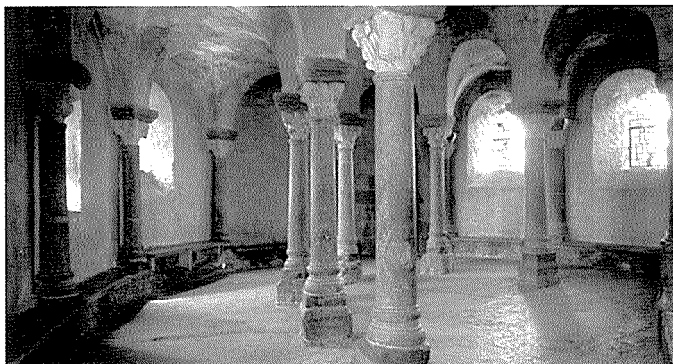
#### 3-1 정면

계단의 마지막 층계참을 오르면 쉐그 미셀 작은 성당의 정면 앞에 서게된다. 본래는 성직자들의 주거지로 세귀레(Séguret)수도원이라 불렀던 초기 암자의 남아있는 마지막 부분중의 하나인 이 정면의 문은 오른쪽이 순찰로와 연결되어 있다. 이 정면에 대하여 메리메(Mérimé)는 “건축술의 작은 보석”이라고 표현했다. 다색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정면은 따스한 느낌과 색으로 가득한 이슬람식 예술과 간결하고도 절제있는 로마네스크양식 예술이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침햇살이 이 다색정면을 비출 때가 가장 아름다우며 특히 대리석 모자이크와 조각은 찬탄할 만하다. 테두리를 다양한 띠로 두르고 분홍색 시멘트로 이어 매우 밝게 처리한 흰색과 붉은색 마름모꼴 모자이크에서 조각가의 숨씨가 돋보이며 모자이크와 조각이 서로 어울리고 있는 것이 이 작품의 독특한 특징이다. 로마네스크 양식예술에 있어 성당의 정면은 그 당시 인간들이 지녔던 신앙심을 조각으로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곳이었다. 이곳 쉐그 미셀 작은 성당의 문은 당초문 장식의 매우 우아한 세련아치로 꾸며져 있다. 당초문은 동양적인 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들여 다듬은 기둥머리와 조각한 머리판이 있는 두개의 작은 원기둥이 정면전체를 받치고 있고 오른쪽 기둥머리는 두 부제를 나타내는데 가슴에 그려진 영대(겉옷 위에 목뒤로 걸쳐서 몸 양쪽으로 늘어뜨리는 장식천)로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그들은 순수함을 상징하는 백합을 들고 있고 왼쪽의 기둥머리에는 정상을 향해 날아가려고 하는 독수리가 조각되어 있다. 세련 아치를 장식하기 위해 조각가는 요한묵시록과 창세기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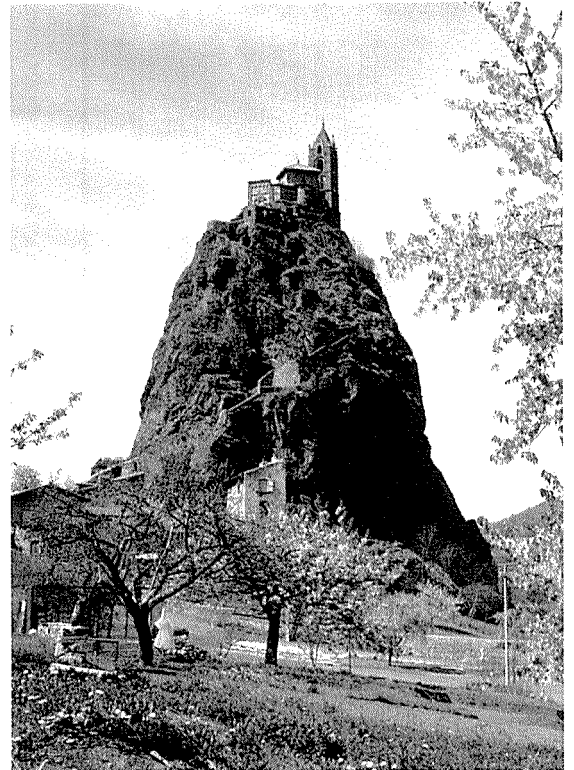
린양 구세주 그리스도를 두 천사가 봉헌하고 있고 그 양쪽으로 두 손을 천으로 가리고 인간들의 기도로 가득찬 금잔을 그리스도에게 내밀고 있는 여덟 명의 노인들이 있다.여기서 12세기와 13세기에 매우 흔했던 “하느님의 어린양”의 건축적 테마를 또 볼 수 있다. 그 주위는 새가 있는 당초문의 앞서귀장식과 악마가 끌어당기고 있는 두 인간이 조각되어있다. 천지창조와 원죄를 상기시키는 이 장면에서 예술가가 창세기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인방의 윗쪽에는 뒤로 머리를 젖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당초문으로 장식한 아키볼트를 볼 수 있으며 사람머리 윗쪽에는 송이를 부리로 쪼고 있는 새가 있다. 이것은 구원에 의해 새로 바뀔 천지창조를 표현한다. 문의 상인방에는 머리를 맞대고 있는 두 인어가 있다. 반신은 여자이며 반신은 동물인 두 인어는 뱀의 꼬리와 물고기 꼬리를 한 신화적 인물들로 땅과 바다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될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다. 정면의 윗부분에는 작은 배내기가 조각되어 있다. 활짝 편 손으로 받쳐놓은 아치아래 다섯점의 저부조 작품으로 구성된 소벽은 이 정문의 장식을 완성하고 있다. 중앙에는 그리스도가 한손에는 성서를 들고 또 다른 한손으로 축복을 하고 있고 알파와 오메가가 주위에 있어 쉽게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다. 오른쪽에는 성모마리아가 손에 잔을 들고 있고 성모마리아 옆에는 요한 성인이 있다. 왼쪽에는 후광으로 둘러싸인 날개달린 미셀 성인이 그 옆에는 열쇠를 들고 있는 베드로 성인이 있다. 이 성인들의 이름을 그들 옆에 새겨놓았다. 정면 중앙에 있는 작은 둥근창의 가장자리는 엮음장식으로 조각해 놓았다. 이 둥근창은 내부에 있는 특별석을 밝게하고 있다. 성서를 들고 있는 그리스도, 부제들, 독수리, 인어, 악마, 문의 양쪽으로 도망가기 위해 위를 향해 뛰어오르는 네 발 달린 짐승들, 미셀



성당 내부



성당 내부



성당 전경

성인에 의해 축출되는 악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들, 이런 여러가지 요소들은 많은 로마네스크 양식의 건축물에서 볼 수 있다. 소벽은 마지막 심판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성서를 든 그리스도는 심판자를 의미하며 성모마리아와 요한 성인은 중재자로 미셀 성인과 베드로 성인을 안내자로 표현했다.

### 3-2 종루

5층으로 된 종루는 르 뷔 대성당의 종루와 흡사하다. 작은 성당의 외부를 둘러보면 뾰족한 바위 위에 있는 자연과 인간의 협력작품인 미셀성인의 성전을 종루가 마무리짓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종루는 1855년 말레이(Mallay)가 제작한 것이다. 본래 있었던 3층으로 된 종탑이 1245년 낙뢰로 파괴되어 이 종루로 대체했다.

## 4. 내부

### 4-1 성당내부

내부의 성당은 하느님의 집이고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천상의 기쁨을 준비하게 하기위해 교인들을 모으는 장소이다. 12세기에 건립된 성당 정문 안의 현관을 지나면 성당 내부에 위치하게 된다. 첫눈에 매우 단순한 것을 알 수 있다. 바위를 쪼개어 만든 거친계단을 지나면 내진 앞에 서게된다. 바위를 잘라만든 계단은 초기의 것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다. 성당 정문 안의 현관은 성당의 확장공사를 했던 12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그 위쪽에는 특별석이 있다. 특별석의 궁륭은 둥근천정 형태를 하고 있다. 회중석의 공간이 크게 없는 이 성당은 현관과 후진 주위회랑이 연결되어 있고 후진 주위회랑이 곧 회중석 역할을 하기도 한다. 내부는 타원형이며 트라베(기둥

과 기둥사이의 공간)가 아홉으로 불규칙한 교차선으로 덮혀 있다. 내진 앞에 있는 중앙회중석 역할을 하는 작은 공간은 반원형의 궁륭으로 아홉 트라베에 둘러싸여 있다. 좁은 바닥을 재치있게 이용한 건축술을 눈여겨 볼 만하다. 궁륭은 사람의 작은 원주들이 받치고 있고 작은 원주 위에는 독수리, 동물들, 당초문, 종려나무, 와형장식등의 다양한 기둥머리로 장식을 했다. 원주속에는 쇠시리를 새겨놓았다.

### 4-2 초기 로마네스크 양식의 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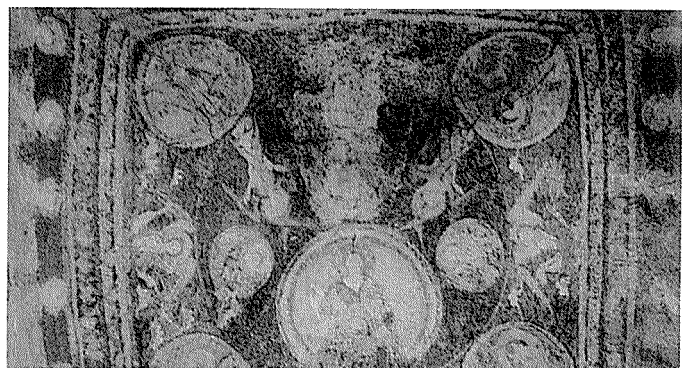
트뤼아뉴가 건립한 초기 기도실은 조그만 정방형 건물로 후진둘레의 제단이 넷 있었다. 그 중 동쪽과 북쪽의 제단이 아직도 남아있다. 오늘날 작은 성당의 내진으로 사용되는 장소는 카롤링 왕조식에 매우 가까운 초기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10세기에 건립되었으며 성당의 후진을 이루고 있다. 현재는 이곳에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복원한 것으로 옛날 제대를 원주 하나가 받치고 있는 제단이 있다. 분홍색 대리석 발판 위에는 납으로 경계를 그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는 발판아래가 바위의 꼭대기 높이와 같다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것이다. 이 정상에서 켈트족이나 골(옛프랑스를 일컬음)사람들이 제사지내던 동굴이 발견되었다. 벽화로 눈을 돌리기에 앞서 10세기 말부터 순례여행의 대상이었던 미셀성인에 대한 숭배의 중심지로 이 장소를 보존하려했던 건축가들의 신앙과 11세기와 12세기에 건축을 하면서도 초기의 내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한 솜씨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 4-3 장식(10,12세기의 벽화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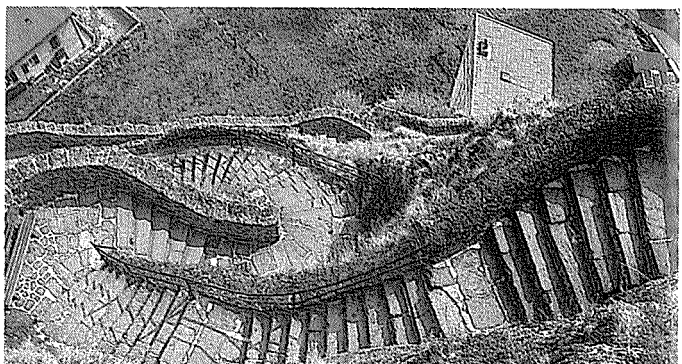
오늘날 작은 성당의 내부에 남아 있는 모든 것은 수수하고 간결하나 대천사의 성전에 순례객들이 몰려들었을 당시에는 기도실은 매우 화려하게 장식되었던 것으로



성당전경



궁륭의 벽화



268계단